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88)

영종여적호

寧從汝賊乎



어찌 너희 구적(寇賊)을 쫓겠는가?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역사를 읽다 보면 나라가 흥할 때도 있고 기울어질 때도 있다. 어쩌다 나라의 기운이 융성할 때 태어나면 참으로 운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운이 좋고 나쁜 것은 한 개인이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없으니 이를 운명(運命)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은 정확하게 운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서 나라의 기울기도 하고 흥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요즈음 읽고 있는 부분은 속자치통감에서 원나라가 망하여 북쪽으로 쫓겨가서 북원(北元)이 되고 쿠빌라이 이후 원나라가 차지하였던 중원(中原)지역을 명(明)나라가 차지하게 되기 10여 년 전 쯤 1352년의 일이다.

이 시기 이전에 이미 원나라가 지배하는 중원지역에는 잦은 홍수가 일어나거나 반대로 가뭄이 들었다. 홍수나 가뭄이 자주 일어나서 농사는 안 되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 주려 죽는 사람이 수없이 나타났다. 나아가서 이를 참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기까지 한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차마 잡아먹지 못하여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는 일까지 기록 되어 있다.

이렇게 비극적인 세월을 맞는 것은 직접적으로 홍수와 가뭄이라는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짧게 보면 그 말이 맞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원말의 이 시기에 특별히 홍수와 가뭄이라는 자연재해 기록이 많다. 그러면 이 시기에 특별히 하늘님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원왕조를 망치려고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게 했을까? 그것은 너무 단순한 운명론이다.

사실 역사를 조금만 더 길게 보면 다른 시기에는 홍수와 가뭄을 미리 대비한 경우가 많았다. 해마다 비고도 가뭄 드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니 미리 홍수를 막으려고 제방을 수축하거나 가뭄에 대비해 저수지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부패하여 국가는 도무지 제방을 수축하거나 저수지를 관리할 생각도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 그러므로 홍수와 가뭄은 천재(天災)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인재(人災)인 것이다.

왕조가 망하는 과정은 결모습은 조금씩 달라도 패턴은 거의 같다. 국가권력을 가

진 사람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워 재물을 갈취하고 그 돈으로 사치하고 퇴폐하게 되지만 제방을 관리할 돈이 없게 되고 백성들은 기아 속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죽기 살기로 도둑질하는 불법을 저지른다. 도둑질하다가 힘이 모자라면 도적거리 모여서 도적떼가 되고 강도가 되고 강도가 되어야 살 수 있으면 양민들도 강도가 된다. 이 상황이 원말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란은 일반화 되었다. 그 반란세력 가운데 서수휘(徐壽輝)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명을 세운 주원장(朱元璋)보다 앞서서 반란을 일으켜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1352년 정월에 그는 자기의 장수인 추보승(鄒普勝)을 시켜서 무장(武昌)을 함락시켰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호광행성(湖廣行省)의 평장(平章)인 상절(桑節, 星吉)이 정만호(鄭萬戶)라는 늙은 장수를 기용하여 그와 상의하여 계획적으로 서수휘의 우두머리를 묶어 두었다. 그런데 이때 조정에서는 상절을 대사농으로 임명하니 그는 전장(戰場)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적구(賊寇)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정만호를 모해하고 묶어 있는 사람을 풀어 주고 안팎에서 적구에게 호응하자 최고 책임자인 평장정사는 도망쳤다. 잘 못된 인사가 일을 망친 것이다.

서수휘의 다른 장수인 노법흥(魯法興)이 안록부(安陸府)를 함락시킬 때의 이야기이다. 노법흥이 와서 공격하는데 지부(知府)인 작로(竈鵠, 丑鵠)가 병사를 모집하여 수백 명을 얻어서 인솔하고 적구를 막았는데, 적구의 전대(前隊)를 패배시키고, 이긴 것을 타고서 이를 뒤쫓았다.

그러나 적구가 다른 문으로 들어오자 빠르게 군사를 돌렸는데 성 안에서 불이 일어나자 군민(軍民)이 무너지고 어지러웠다. 계상해보니 막을 수가 없자 돌아가서 조복(朝服)을 입고 나아가서 공당에 앉았다. 적구가 번득이는 칼로 협박하였지만 작로는 오히려 반역이란 무엇이고 순응(順應)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설득될 적구가 아니었다.

한 명의 적구가 작로를 밀어 내려가서 절하게 하였지만 굴복하지 않고 또 화를 내며 욕을 하자 적구의 수괴(首魁)가 차마 해치지 못하여 그를 구속하였다. 다음 날 또 그를 압박하여 반란한 자기들을 쫓게

하였는데 작로가 아프게 질책하며 말하였다. “나는 국토를 지키는 신하인데 어찌 너희 구적을 쫓겠는가!” 적구는 화를 내고 칼로 작로를 치니 왼쪽 옆구리가 잘리어 죽었다.

적구는 그가 항복하지 않은 것에 분을 내고 다시 포낭(布囊, 자루)으로 그 시체를 싸가지고 둘러메어 그 집에 두었더니 작로의 처인 후씨(侯氏)가 나와서 크게 통곡하고 또 술과 고기를 앞에다 가득 놓아 놓고 목마른 사람은 술을 마시게 하고 주린 사람은 고기를 먹게 하면서 적구의 사자(使者)를 속여서 자기를 막지 않게 하더니 밤이 되어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능력은 있으나 퇴직한 만호(萬戶)인 정만호와 하급 지방관인 작로와 그 가족의 처절한 최후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 하급 관리의 눈물겨운 투쟁은 보는 사람의 감동을 줄뿐 대세를 바꿀 힘은 없었다.

고통을 참지 못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세력을 넓히려려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 서수휘를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키고 머리에 홍건(紅巾)을 둘렀으니 스스로 적구(賊寇)임을 드러낸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잘 못을 저지른 것으로 인식된다면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대 놓고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고 표시한 것이다. 그것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정부보다 홍건을 두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때 정부는 명분상으로 정당한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명분을 좇아 하층관리와 부녀자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를 보면서 황제와 재상, 귀족들이 저지른 죄가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元)을 이끌던 세력이 자기들의 부패를 숨기려 했겠지만 백성들은 벌써 알고 있었고, 그래도 순진하고 힘없지만 이 사람들만 그 부패한 국가와 조정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의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상황이나 한말(韓末)의 상황이 원말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지금도 많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도 공무원들은 이러한 역사를 보고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올해(2025년)의 사자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變動不居

붓글씨는 권태정 상임위원이 직접 썼다.

변동불거(變動不居)

변할 변. 움직일 동. 아니 불. 살 거.

세상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를 꼽았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이다. 교수신문은 이 사자성어에 대해 “한국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는 서울대학교 양말모 교수가 추천했고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 정권교체, 여야의 극한대립, 법정공방, 고위 인사들의 위선과 배신을 목도했다”면서 “대외적으로 미중 신냉전, 세계경제의 혼미,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초

고사성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말. 농경사회에서 농업을 장려하는 말

다사다난(多事多難)

많은 다. 일 사. 어려울 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은 유의어로 다사다망(多事多忙)이 있음

많을 다. 재주 재. 능할 능. 재주와 능력이 여러 가지로 많음

단도부회(單刀赴會)

홀 단. 칼 도. 나아갈 부. 모일 회. 칼 한 자루만 들고 위험한 자리에 나아간다는 뜻으로 대담함을 뜻함. 삼국지에서 손권의 책사 노숙이 관우를 초청해 연회를 열고 담판을 짓고 여차하면 죽이려 하는데 관우는 칼 한 자루만 들고 참석하여 대담하게 나아가 담판을 지었다는 데서 유래.

안동권씨 권주회(주택관리사회) 모임

안동권씨 주택관리사 모임인 권주회(權住會)가 지난 11월 29일 광화문 고봉삼계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권주현 회장을 비롯하여 권정섭 고문, 권오상 총무 등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원 전체가 주택관리사이자 아파트관리소장이다.

현재 회원은 13명이며 모두 안동권씨이다. 권정섭 고문은 주택관리사 1회 출신으로 주택관리사 관련 강의를 수년간 하는 등 이 업종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베테랑이다. 그래서 권정섭 고문이 일찍이 권주회 모임을 결성하려 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권주현 회장 등 후배 주택관리사들이 뜻을 모아 권주회를 창립하였다. 안동권씨 전문직종인



의 모임은 안동권씨 문인을 중심으로 한 태사문학회에 이어 권주회가 두 번째이다. 권주회는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고 안동권씨로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3개월마다 모임을 갖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謹賀新年



협의회장 권태호(충청북도 회장)

고문

권길상(협의회 초대, 2대회장. 부산), 권동술(협의회 3대 회장. 합천), 권영호(협의회 4대 회장. 부산)

부회장

권영학(영등포회장), 권영복(서울지역회장), 권영현(부산회장), 권오섭(대구회장), 권대주(광주회장), 권용기(대전회장), 권이수(전주완주회장), 권용준(안양회장), 권혁소(시흥회장), 권종희(상주회장), 권병기(이령회장), 권오홍(경산회장)

감사

권오협(충주회장), 권혁휘(원주회장)

간사

권철환(안동회장)

권혁우 강릉회장

권오수 마·창·진회장

권병후 수원회장

권영희 영양회장

권병기 의령회장

권병섭 청송회장

권오홍 경산회장

권영복 서울지역회장

권준표 순천회장

권중수 영주회장

권오덕 의성회장

권혁휘 청주회장

권혁웅 경주회장

권태갑 문경회장

권혁소 시흥회장

권호락 영천회장

권이수 전주·원주회장

권태호 충북도회장

권대주 광주회장

권유진 밀양회장

권태훈 아산회장

권오영 예산회장

권재원 정읍회장

권오협 충주회장

권영화 구미회장

권양호 봉화회장

권철환 안동회장

권태원 예천회장

권인창 제주회장

권혁수 칠곡회장

권경관 금산회장

권영현 부산회장

권용준 안양회장

권영국 옥천회장

권득상 체천회장

권용구 태안회장

권오민 김포회장

권순주 부천회장

권용만 양평회장

권희성 온양회장

권천문 서울중구회장

권순종 통영회장

권대영 서울금천회장

권오식 분당회장

권경현 여수회장

권영순 용인회장

권영목 서울중랑회장

권봉정 포항회장

권순욱 단양회장

권병국 산청회장

권혁산 여주회장

권희성 울산회장

권성업 증평회장

권준관 하동회장

권공식 담양회장

권종희 상주회장

권영하 연천회장

권영익 원주회장

권재덕 진주회장

권상기 함양회장

권오섭 대구회장

권상용 서남권회장

권두찬 영덕회장

권병택 음성회장

권오섭 진천회장

권영록 합천회장

권용기 대전회장

권주석 서천회장

권영하 서울영등포회장

권석중 익산회장

권광규 창녕회장

권병규 횡성회장

안동權씨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순서는 지역명 가나다 순입니다.